

2021 NPO 트렌드 리포트

: 신호와 감지



목차

2021년 NPO 트렌드 리포트를 읽기 전에	4
내러티브: 신호와 감지	6
시민 참여를 재정의하는 디지털 액티비즘 : 디지털 행동주의 · #해시태그 · K팝 팬덤 · 밀크티 동맹	21
집단지성, 오늘의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 조글(JOGL) · 소셜 R&D · 주니버스	35
3.5%의 적극적 행동가를 조직한다 : 선라이즈 무브먼트	59
기록과 데이터로 차별과 혐오를 가시화하다 : 스톱 AAPI 헤이트	80
데이터 거버넌스로 불공정한 관행에 틈새를 만들다 :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	91
참고문헌	101

2021년 NPO 트렌드 리포트를 읽기 전에

올해 NPO 트렌드 리포트는 **국외 비영리 현장에서 감지한 크고 작은 신호**에 관한 이야기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큰 혼란이 생긴 시기였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확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에 내재하여 있던 깊은 틈을 드러냈다. 기후 위기,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양극화 이슈는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깊게 할퀴고 있다.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위기로 읽히는 수많은 신호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작은 신호가 서로 얽혀 더 큰 신호를 만들어내고, 더 큰 신호가 다시 작은 신호에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일찍이 우리가 마주한 신호이기도 하고, 상호 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증폭된 신호이기도 하지만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어졌다. 언제쯤 이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 아득하지만, 그럼에도 위기의 신호를 감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누적되어 있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고 있는 반가운 신호를** 발신하는 데서 희망을 발견한다. 많은 것이 모호한 상황 속, 우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사이를 갈라놓을 변곡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은 근본적인 토대를 크게 바꿀 것이다. 이는 사회의 흐름과 조응해 온 시민사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 그리고 미래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2021년 NPO 트렌드 리포트는 코로나19가 증폭시킨 변곡점을 지나며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여정을 담아보려 했다. 첫 시작은 리포트에서 소개하는 사례와 논의가 어떤 맥락과 관점에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어떤 변곡점에 있는지 **내러티브**를 통해 들여다본다. 이어서 하늘길이 막혔던 2021년,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며 변화를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놀라운 발전 속도로 우리의 일상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 시민들의 집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비영리 활동 사례와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위기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의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여정에 담긴 이야기가 발신하는 공통된 신호를 여러분도 함께 감지할 수 있길 바란다.

내러티브

신호와 감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지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세상의 속도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과 일상의 풍경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크게 변화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눠지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도 있었으나, 그간 인류가 축적해온 다양한 문제의 맨얼굴을 마주하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위기 감각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공유한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가 발발한 2019년 12월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 시민사회, 기업은 바이러스 대유행이 몰고 온 사회적 단절, 경제 침체, 보건의료 시스템 과부하 등 즉각적 위기에 대응하는 '반응 모드'에 돌입했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회경제 침체와 불황의 시기이다. 이렇듯 현재 상황에 움짱달짝 못 하며 당장의 위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각을 폭넓게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걷어내고 전 세계가 이토록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고질적이면서 만성적인 사회 문제가 우리 일상에 가깝게 닿아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나누고 있다.

가시화된 사회의 취약성

코로나19는 사회 문제가 얼마나 일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지 드러낸다.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계층 간, 지역 간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가 초래한 전 지구적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크게 깨져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환경, 재난 및 재해, 식량 위기, 비자발적 이주 및 이민,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 고령화, 불평등, 교육 격차, 공동체의 위기는 늘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일컬어졌지만, 눈앞에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 또는 나와는 관계가 먼 타인의 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깊이 체감하는 현재의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즉각적 대응을 주저하거나 미뤄왔던 기후 위기,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은 코로나19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기후 위기 코로나19는 기후 위기가 인재임을 드러낸다.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사람과 자동차, 비행기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산업 생산에도 변화가 생기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수질오염이 개선되었다. 단기간의 변화라 할지라도, 기존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상 속에서 이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C 내로 제한하는 것을 인류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7.6%씩 감소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산업 경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수치는 5.6%에 지나지 않았고²,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은 힘들고 더디기만 하다. 이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나갈지 우려가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세계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고 방법을 합의하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큰 세계적 관심이 쏠렸다. 문제는 기후 위기가 그저 생태계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 위기는 여러 현상을 촉발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작이다. 지구의 생태 환경 조건의 변화는 노동, 식량, 주거, 인구, 주권, 이동 등 기존 사회경제 문제를 심화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 놓는다.

1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요약본)”, 기상청, 2019. 5. 28, https://www.gihoo.or.kr/portal/kr/community/data_view.do?p=1&idx=18546&column=&groupname=data&groupid=&f=1&q=

2 서동준, “이산화탄소 농도 2020년에 또 역대 최고치 기록”, 동아사이언스, 2021.10.27,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165>

경제 불평등 코로나19는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 구조를 드러낸다.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유례없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내몰렸다. 국제 구호개발 기구 옥스팜(Oxfam)이 발간한 ‘코로나 시대, 부의 불평등(The Inequality Virus)³⁾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년간 이어온 세계 빈곤의 감소 추세를 뒤집어 놓을 것이고, 2030년까지 2~5억 명의 빈곤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 빈곤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며, 경제적, 인종적, 젠더 불평등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의 혜택이 많은 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구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연구 결과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미국을 넘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82개국 900여 개 도시로 확산하면서 경제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수면위로 띄운 지 10년이 된 2021년 현재, 경제 불평등은 10년 전보다 악화⁵⁾했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불평등과 사회 갈등 수준도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국가 간

3 옥스팜, “코로나 불평등 심화, 바이러스만큼 치명적” 억만장자 9개월 만에 코로나19 손실 회복, 극빈층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2021.1.25, www.oxfam.or.kr/press_davos2021

4 연윤정, “한국은행, 코로나19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매일노동뉴스, 2021.5.1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6>

5 이윤정,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그후 10년. 경제 불평등 해소 못했지만 ‘목소리’의 힘을 봤다”, 경향신문, 2021. 9. 14, https://www.khan.co.kr/view.html?art_id=202109142143015#c2b

백신 불평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9%를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는 전 세계 0.4%, 백신 공급은 0.5%에 불과⁶하다. 국제사회가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추가 접종 유예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개인과 집단, 지역, 산업 부문, 성별 및 세대, 인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적 결속이 와해하며 사회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위기 상황이 사회적 대분열(Great Divide)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⁷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나 집단에 영구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손상(Long-lasting Scars)을 입혀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제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소득 불평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미국 주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40개가 넘는 변수 중 소득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⁶ 최현준, “WHO 27조원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 프로젝트 시작”, 한겨레, 2021. 10. 2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7163.html

⁷ Stiglitz, J. (2020. 9), “Conquering the Great Divide”, IMF Finance &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작용했다⁸.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위기 속에서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글로벌 인포데믹(Infodemic)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 혐오와 갈등 현상이 일상에서 빚어진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그러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단편적이거나 잘못된 정보 혹은 믿음에 근거해 분노가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 현상은 온라인과 만나 더욱더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쏠리고,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시하면서 여러 중요한 가치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목소리가 크게 제약을 받고, 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퇴보하는 모습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별 국가별로 대응하면서 국가의 권위와 강제력이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검사·추적·치료 등의 의료 활동을 포함해,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도시 봉쇄,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공개와 같은 정부의 비상 대응은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⁸ 이강국, "팬데믹 사망률, 바이러스 위험보다 소득 불평등에 달렸다", 시사인, 2021.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4>

⁹ 인포데믹이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으로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약을 가하는 조치이지만, 현 상황을 감안해 이러한 제한을 옹호하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으면서 점차 무비판적으로 수용¹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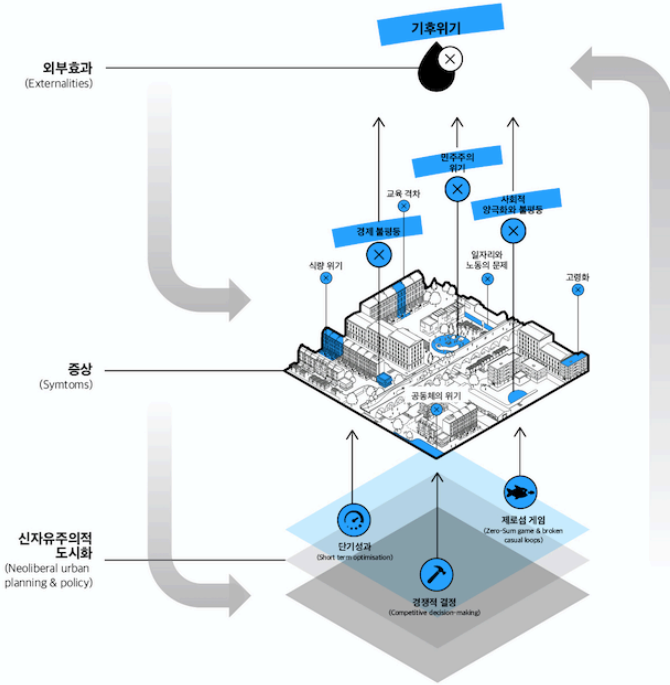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실제 많은 국가의 권위주의 수준이 상승¹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이 멈추고,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많은 정부는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제한¹²하려 한다.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인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시위나 모임도 방역을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활용하기도 한다.

¹⁰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대학지성 In&Out, 2021.1.3,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3>

¹¹ 상동

¹² 국제앰네스티, “침묵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얻다: 코로나19 도중 위험에 처한 표현의 자유”, 2021.10, <https://www.amnesty.org/en/wp-content/uploads/2021/11/POL3047512021ENGLISH.pdf>

코로나19가 보여준 문제의 꼬임과 얽힘: 복잡성의 시대



도시 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문제와 같은 가시화된 사회적 취약성은 신자유주의 도시 계획과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표면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도시 문제는 기후 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삶의 조건을 바꾸고, 이는 또다시 도시 문제를 악화시킨다. 각각 분리된 증상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 모두에게 요구되는 주체적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다. (출처: DML)

코로나19는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경고 신호이다.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해결하기에 지금의 거버넌스, 경제 구조, 기술, 공공 정책, 사회 서비스가 충분한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위기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연쇄 작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커진다는 것은 지난 세기의 방식으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은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다.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추구함으로써 이뤄진다.”

- 마르셀 프루스트

변화는 물질적 사고의 범주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위기는 사회 구성원이 변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변동성이 커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변화를 추동할 주체인 사회 구성원에게 생각의 범주를 넓히며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에 필요한 전환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완전히 다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징후에 근거한 변화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 물적 구조, 인간, 그리고 이들 관계에 대한 근본적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예측해 수립하는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로는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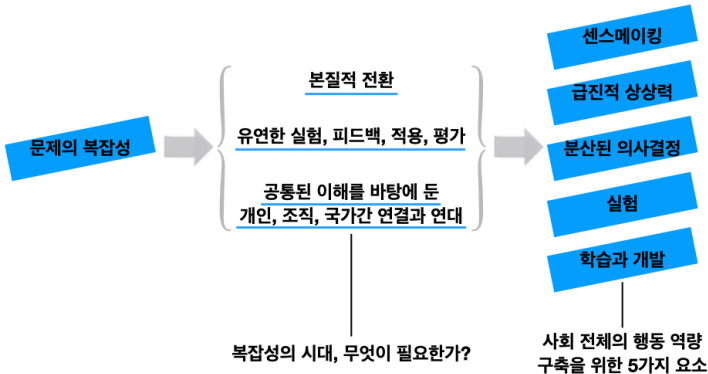
다가올 변화와 그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현상 해석과 미래 계획, 과정 설계, 적용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수립되면 변경되기 어려운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나 피드백, 평가를 적용하고,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 지속적으로 편집과 업데이트가 되는 동적 문서)'를 공유한다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경제적 주체는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과 인종, 세대를 가리지 않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개인 및 조직과 연대하여 수평적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 역량은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까?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조직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제안해본다.

- **센스메이킹(Sense-Making):** 우리 사회 전체의 복잡한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량에 맞게 행동을 취하고 자 하는 사회 구성원 및 사회 전반의 주체적 문제 인식을 말한다.
- **급진적 상상력(Radical Imagination):** 새로운 관점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상상력, 발명 및 혁신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 **분산된 의사 결정(Distributed Decision-Making):** 장기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풀뿌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은 물론, 이 의견들이 현장 단위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의사결정의 권력이 분산된 구조가 필요하다.

- **실험(Experiment):** 개인과 공동체, 시민사회, 기업, 정부 조직 등 우리 사회의 개별 주체가 다양한 상상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의 기회를 유연하게 가져야 한다.
- **학습과 개발(Learning&Development):**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솔루션은 없다.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워크와 조건을 폭넓게 살펴보고 다양한 선택지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경험을 망라하는 지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는 실험 과정을 개발하고 결과를 학습하며 만들어진다.



(출처: DML)

시민사회는 구조적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두의 행동 역량이 필요한 이때, 올해 NPO 트렌드 리포트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요소에 비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불러온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체와 활동을 소개하려 한다.

팬데믹 시대,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활동 또한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사회 내 물질, 인적 자본이 모두 집중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단절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시민사회 조직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재택근무를 비롯한 일의 형태와 의사결정 방식에 변화를 꾀하는 한편, 밖으로는 활동 방식과 이해관계자 연계, 모금 전략 등을 바꾸며 활동의 유용성을 증명해내야 했다. 분명한 것은 시민사회가 정부 및 기업,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했다.

지금 이 시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우리의 물리적 행동에는 제약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온라인 활동의 규모와 비중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술의 변화는 시민들이 연대하고 활동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고, 더 나아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영향력 확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활동 모델, 시민 활동의 경로 다각화는 새로운 시민 행동주의(Activism)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시민사회 지형을 둘러싼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변화의

갈래가 많아지는 이때, 시민사회 조직이 어떻게 이 흐름을 끌어안아 팬데믹 이후의 시기를 준비할 것인지 회고와 도약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빠른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 사회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미시적인 변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의 방향성과 전략 탐구가 필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기관, 지역 커뮤니티, 공공 기관,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는 투자자와 재단 등 시민사회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두의 관점 전환과 역량 준비가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며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2021년 NPO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건너고 있는 개별 시민들의 집합적 움직임, 글로벌 시민사회 내 다양한 논의 및 활동 변화 지점,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자 한다.

활동 사례 + 이니셔티브

시민 참여를 재정의하는

디지털 액티비즘

: 소셜미디어 · #해시태그 · K팝 액티비즘 · 밀크티 동맹

#센스메이킹 #급진적상상력 #분산된의사결정



디지털 기술이 만든 시민 공간과 연대의 확장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처음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은 이후 2017년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의 성범죄를 고발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기점으로 온라인 성폭력 고발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미투 운동은 해시태그의 위력을 타고 성장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전례 없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평가받으며 현재에도 국경의 경계를 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환경 운동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크게 확장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한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활동 또한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다. 온라인 공간은 이들의 목소리를 울려 많은 사람이 함께 공명하게 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시민 공간의 확장을 넘어 새롭게 만드는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다. 온라인, 디지털, 네트워크가 가진 미덕, 즉 분산화된 연결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모이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동은 다시 오프라인상의 시민 행동과 참여를 강화했다. 온라인 미디어 중심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열렸으며, 다양성, 평등, 정의와 같은 사회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아랍의 봄(the Arab Spring)¹³이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the Black Lives

¹³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촉발되어 아랍·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 일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운동이다. (출처: 두산백과)

Matter)¹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 Movement)¹⁵,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Sunflower Movement)¹⁶, 홍콩 우산혁명¹⁷처럼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연대하고 행동하는 시민운동의 양상도 일반화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시민 공간과 연대 방식은 우리 시대의 큰 변화로 뿌리내렸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강력히 확장하는 모습이다.

고립의 시대와 디지털 행동주의

누구도 예외 없이 이동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지금, 우리의 오프라인 생활 환경은 축소되고 온라인 생활 환경은 확장하고 있다. 일과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온라인으로 일부분 옮겨갔고, 이는 더이상 어색하거나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비대면 방식이 사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일

¹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을 말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할 때 사용되는 시위 구호이기도 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¹⁵ 2018년 11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점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시위를 말한다. 노란 조끼는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해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¹⁶ 2014년 초에 대만과 중국 본토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에 대한 항의로 대규모 학생운동이 시작되었다.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학생 등이 입법원을 점령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대규모의 집합행동으로 평가된다. (출처: 서울대 다양성+Asia)

¹⁷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로 당시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 15일까지 약 79일간 이어졌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상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극단적으로 강해졌고, 기존 시민사회 조직, 비영리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 또한 온라인 공간으로 집중되었다.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취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치적 사건과 운동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글로벌 청원 웹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 재단의 프리시 허먼(Preethi Herman)은 "지난 몇 달 동안 시민 참여와 디지털 행동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긍정적 변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데 비전통적 참여자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지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청원은 80% 증가¹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점은 참여와 운동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단순 확장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프라인과 더욱 밀접하게 연동되어 온라인 활동이 정교화되거나, 규모나 성격 면에서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운동의 시작과 전개가 온전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집단에 디지털 공간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증폭해 전달하는 창구이자,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공론의 장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¹⁸ Harriet Barber, Covid-19 has ushered in a new era of digital activism – and global leaders are listening, The Telegraph, 2020. 8. 26, <https://www.telegraph.co.uk/global-health/climate-and-people/covid-19-has-ushered-new-era-digital-activism-global-leaders/>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 청년 세대가 정치 사회적 참여를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로 여기면서 기후변화, 인종 차별, 젠더, 투표권,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소셜 미디어를 탁월하게 활용하고 있다. 2021년 6월에 실시된 퓨 리서치(Pew Research) 설문조사¹⁹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54%가 지난달에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클릭 한번은 활동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스마트 몹(Smart Mobbing), 가상 시위, 클라우드 소싱 온라인 문서와 같은 협업 이니셔티브, 선거 감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감시(Sousveillance)²⁰ 등 비폭력 행동을 위한 창의적인 운동 방식이 디지털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다. 여러 문제에 걸쳐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와의 대화를 주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흐름을 재정 의된 시민참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 행진 속에서 읽히는 맥락을 몇 가지 키워드를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¹⁹ Brooke Auxier, "Activism on social media varies by race and ethnicity, age, political party", Pew Research Center, 2020.7.13,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7/13/activism-on-social-media-varies-by-race-and-ethnicity-age-political-party/>

²⁰ 대중이 권력자, 즉 상층부를 감시한다는 개념으로 디지털 시대의 감시 대응 형태를 말한다.

해시태그로 운동하는 청년 액티비즘: K팝 팬들이 움직인다

트위터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해시태그는 현재 플랫폼을 막론하고 주류 미디어에서 관심받지 못한 사회 문제와 운동의 내러티브를 빠르게 형성하고, 전 세계 시민이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 운동에 지지와 연대할 수 있는 핵심 연결 수단이 되었다. 공동의 해시태그를 걸고 사용하는 것으로 공감과 연대를 확인하고, 리트윗(Retweet)이나 리포스트(Repost)를 통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빠르게 퍼뜨린다. 미투(#MeToo)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_Lives_Matter),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_for_Our_Lives)²¹, 타임즈 업(#TimesUp)²² 등 해시태그로 공동의 액션이 신속히 조직되어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는 곧잘 볼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K팝 팬들에게 굴욕을 당한 일이 화제가 되었다. 소수자와 다양성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K팝 팬들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공화당 대규모 유세를 크게 망쳐놓은 것이다.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티켓을 신청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 6,000명 남짓만 참여하면서 흥행에 참패했는데, 그 원인으로 K팝 팬들이 이른바 ‘노쇼(No Show) 시위’를 위해 가짜 예매한

²¹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열린 학생 주도의 총기규제 지지 시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23972>

²² 여성 배우, 작가, 감독, 프로듀서 등 할리우드 여성들이 해당 업계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https://www.yna.co.kr/view/AKR20180102002700072>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언론의 큰 주목²³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시태그 운동의 시발점이 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당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해시태그 운동을 좌절시키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원한 것도 K팝 팬들의 조직된 움직임이었다.

한국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전 세계 팬들이 음악을 즐기는 공동체를 넘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회·정치 이슈에서 온라인 운동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은 "K팝 팬덤이 젊고 디지털 지식이 풍부하며, 정치적 관심이 높은 Z세대의 표본으로서 온라인 운동가로 진화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K팝 팬덤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효과적으로 디지털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K팝 산업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세력이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분석한다. 이들은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플러딩(Hashtag flooding) 즉, 인종 차별적이거나 혐오성 게시물을 올릴 때 쓰는 해시태그를 밀어내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의 팬 캡이나 사진을 대량으로 올리며 밀어내는 전략을 쓴다. 오래전부터 큰 규모와 조직화를 자랑했던 K팝의 팬덤은 K팝의 글로벌화로 팬 커뮤니티의 국적과 인종이 다양해지면서 다양성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을 확장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의 동인이 형성된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²³ Julia Hollingsworth, "K-pop fans are being credited with helping disrupt Trump's rally. Here's why that shouldn't be a surprise", CNN, 2020. 6, <https://edition.cnn.com/2020/06/22/asia/k-pop-fandom-activism-intl-hnk/index.html>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K팝 팬들이 온라인에서 단결하는 힘은 더욱 커졌다.

최근에는 K팝 팬들의 기후 행동이 활발하다. K팝이 더 확산되고 팬들이 오래 즐길 수 있으려면 건강한 지구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K팝 가수를 모델로 내세워 성장한 기업에 탄소 저감이나 재생 에너지 사용, 탈탄소 계획 수립을 당당히 요구한다. 올해 3월에는 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 ‘케이팝포플래닛(KPOP for Planet)’을 만들었다. 캠페인, 모금부터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까지 활동의 경계도 유연하다. 이들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K팝 시장 전반의 친환경 변화를 만드는 일이다. K팝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주요 회사를 상대로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을 시작했다. 친환경 앨범 포장 패키지와 굿즈부터 탄소배출이 적은 공연 환경까지 K팝 회사가 적극적으로 K팝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도록 메시지를 발신한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친환경적인 앨범 제작, 앨범 구성품 선택 수령 등의
기후 행동을 요구하는 청원 캠페인 (출처: 케이팝포플래닛 트위터)

지금의 글로벌 K팝 팬들은 그 어떤 사회 운동가나 활동가 못지않게 사회 이슈에 열정적이다. K팝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공통점은 국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10~20대 청소년과 청년이 만나고 함께 행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대한 신뢰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연대하며 자기 목소리를 낸다. K팝 팬들의 사회 참여 방식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이유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들의 국제적 디지털 연대: 밀크티 동맹

팬데믹 상황이 많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홍콩과 대만, 미얀마를 비롯해 특히 아시아 내 민주주의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대만과 태국,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가 보여주듯

이 아시아 민주화 시위의 중심 세력은 젊은 세대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시위는 디지털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아시아 내에서 최근에 민주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던 미얀마의 상황을 보자. 쿠데타를 감행한 군부에 미얀마 국민은 촛불 시위, 세 손가락 경례로 상징되는 반정부 시위,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으로 군부의 총칼에 맞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조치로 가두시위가 점점 어려워지고, 군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다. 내부 정치 문제로만 묻힐 것 같았던 미얀마의 상황은 시민들이 가상 사실망을 사용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과 판단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Whats_Happening_In_Myanmar(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justice_for_myanmar(미얀마를 위한 정의), #reject_militarycoup(군사 쿠데타를 거부한다), #myanmar_wants_democaracy(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원한다)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국제적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3월 1일 만장일치로 쿠데타 철회를 촉구하고,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가혹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내정 개입을 자제해온 유엔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 사회가 미얀마 사태를 주시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세 손가락 경례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 모습
(출처:Gayatri Malhotra)

미얀마 국민에게 국제사회 성명보다 더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은 아시아에서 보내는 뜨거운 연대였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인 비난이나 국민의 저항에 개의치 않고 새로운 내각을 수립해 권력을 강화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보내 시민을 향한 폭력의 수위를 높일 때, 미얀마 시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SNS로 영상과 글을 발송했다. 공개된 영상 중에는 길거리의 시위 장면, 군이 실탄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실상이 담긴 메시지는 평범한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를 증폭해 여러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시아 청년 민주화 지지층이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밀크티 동맹을 표현한 포스터로 태국의 아시스트 시나 위타야위로가 소셜 미디어로 공유했다 (출처: 시나 위타야위로 트위터)

2월 28일, 군부 쿠데타 시작 4주 차에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치는 등 최다 사상자가 속출하는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상에 '밀크티 동맹(#MilkTeaAlliance)'이란 해시태그가 활발히 공유됐다²⁴.

²⁴ "Milk Tea Alliance: Twitter creates emoji for pro-democracy activists", BBC, 2021. 4, <https://www.bbc.com/news/world-asia-56676144>



Twitter Public Policy  @Policy · Apr 8, 2021

...

We have seen more than 11 million Tweets featuring the #MilkTeaAlliance hashtag over the past year. Conversations peaked when it first appeared in April 2020, and again in February 2021 when the coup took place in Myanmar🇇🇵:



92

2.8K

3.1K



트위터 공식 계정은 2020년 4월 밀크티 동맹 해시태그가 등장한 이래 110만 회 이상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밀크티 동맹을 지지하기 위한 트위터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출처: 트위터 공식 계정)

이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²⁵이라 불리는 느슨한 온라인 연대가 미얀마 시민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에 나섰다. 밀크티 동맹은 원래 태국, 홍콩, 대만 사이의 반중국 연대로 시작되었으나,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확장했다. 이들은 인도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도 연대하며, 홍콩과 대만의 청년들이 평화적 시위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고, ‘피의 일요일’ 당시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수백 명의 청년이 모여 미얀마 시민을 지지하는 거리 집회를 열기도 했다.

²⁵ 태국의 한 유명 배우가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중국 누리꾼의 비난을 받아, 이를 보던 홍콩과 대만 누리꾼이 나서면서 세 국가 사이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밀크티 동맹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 추구라는 공동의 가치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네이션 로(Nathan Law)

밀크티 동맹은 영화 ‘헝거 게임(The Hunger Games)’의 세 손가락 경례와 같은 문화적 상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하나의 트윗이 세상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지만 수천 개가 모이면 세상을 움직일 신념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새로운 저항과 연대의 방식으로 권위주의와 독재 정부에 대항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미얀마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내전 양상을 띠고, 따라서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군경의 탄압에 더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대도시에서의 시위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보도 통제가 이뤄지면서 미얀마의 상황을 해외 언론이 직접 취재하는 방법이 크게 제한되었지만, 용기를 낸 시민 다수의 소셜 미디어 제보로 미얀마인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꾸준히 알려지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현 상황 또한 낙관적이지 않지만, 쿠데타 세력 반대 시위의 디지털화로 시민들은 전 세계 지지자들과 계속 연락하며 상황을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기록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집단지성,

오늘의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 조글(JOGL) · 소셜 R&D · 주니버스(Zooniverse)

#센스메이킹 #급진적상상력 #실험 #학습과개발

위기에 대항하는 집합적 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되었다. 백신과 치료제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제기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연구 개발에만 평균 10~15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패 확률도 높기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례없이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이뤄지고, 먹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긍정적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 인류가 의학 기술 분야의 놀라운 발전을 목도하고 있다.

백신 개발과 같이 인류가 축적해온 지적 성취를 통해 큰 위기를 건너가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로운 과학적 도전과제를 만들어냈다. 바이러스가 발발하자마자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진단, 치료 문제가 최우선으로 대두되었지만,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필수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진단 키트와 같은 의료 장비나 의약품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인구가 상당수였다. 팬데믹 초기에는 당장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중앙 집중 방식으로는 긴급을 다투는 모든 문제에 효과적이면서도 시의성 있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위기를 인식하고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과 참여, 그리고 마스크 맵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솔루션은 매일 일상을 몰아세우는 위기를 넘어서는데 큰 힘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집합적 힘의 놀라움을 또 한번 경험했다.

일찍이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효용을 DIY 생물학²⁶, 커뮤니티 실험실과 같은 다양한 시도로 실천하던 과학기술 분야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연구 데이터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오픈 사이언스²⁷를 통해 질병 대응 연구 및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²⁸. 디지털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탐색해 솔루션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실험 또한 활발한데, 이러한 풀뿌리 집단지성 방식의 시도는 중앙집중적 사회 시스템의 손이 닿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규모 협업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집단지성 플랫폼: 조글

저스트 원 자이언트 랩(Just One Giant Lab(JOGL), 이하 조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명 공학 분야의 연구방식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개방형 분산 플랫폼이다. 조글은 코로나19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학생, 아마추어, 의사, 연구원, 학자, 기업가, 정책 입안자 등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을 연결해서 협업의 고리를 만들고, 혁신

²⁶ DIY생물학은 전문 연구기관에 속하지 않은 생물학 애호인들이 직접 스스로 생물학과 생명 과학을 연구, 실험, 실천하는 새로운 생명공학 경향이다.

²⁷ 오픈사이언스란 모든 종류의 과학적 지식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용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연구에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통틀어 오픈 사이언스라고 한다.

²⁸ “왜 오픈사이언스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중요한가?”, 주 OECD 대표부, 2020. 5. 18, https://overseas.mofa.go.kr/oeecd-ko/brd/m_20806/view.do?seq=173

프로젝트를 시도할 ‘단 하나의 거대한 가상 실험실(Just One Giant Lab)’을 표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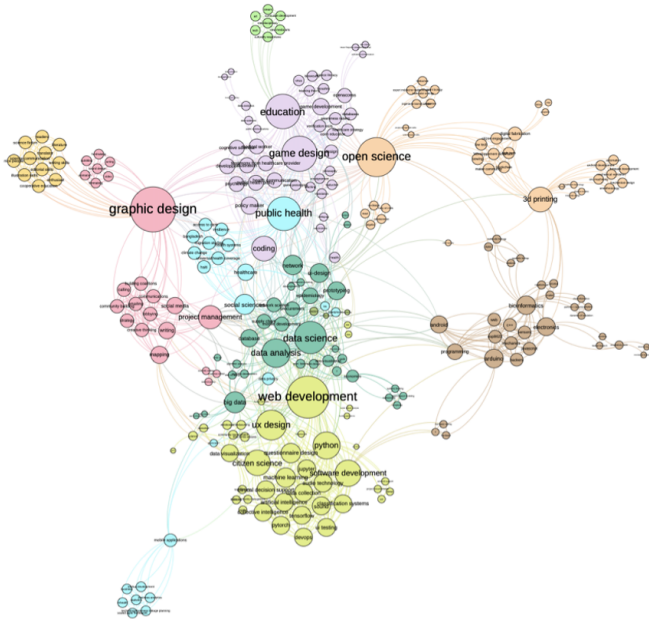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일로를 걸을 때, 진화 생물학자이자 조글의 공동 설립자인 레오 블론델(Leo Blondel)은 지금의 의료 과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상했다. 소수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 연구의 벽을 허물고, 집단지성이 가진 잠재력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과학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시기는 엄청난 연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글의 기본 구조는 열린 커뮤니티이며, 우리는 항상 아래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위기의 시대에 조글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신뢰하고 커뮤니티의 노력을 실현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재단, 기업, NGO와 같은 대규모 기관의 의지였습니다.”

- 공동설립자 레오 블론델

조글은 현실과 맞닿아있는 실용적 과학 과제에 집중한다. UN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와 연관된 연구 주제를 다루며, 가장 시급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올해 3월 초, 저비용 오픈소스 코로나19 진단 테스트 관련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조글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한 달 만에 183개국 6만 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그중 3천 명이 프

로젝트에 참여해 마스크 디자인부터 저가 인공호흡기 프로토타입, 기침 감지 AI 앱까지 90개 이상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데이터 과학자, 인류학 연구원, 엔지니어, 생물학자, 공무원, 학생, 일반 시민 등으로 예상치 못한 조합의 그룹들이 가상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며 건강, 환경, 사회 및 인도주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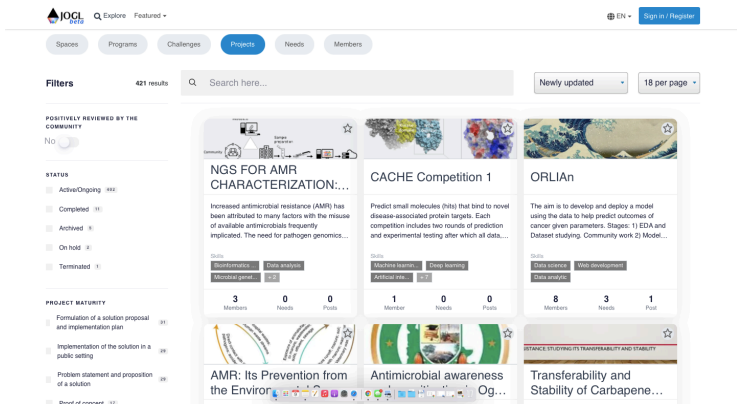
조글에서 진행중인 코로나19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량 맵(Skill map) (출처: Marc Santolini, 조글 웹사이트)

조글의 미션

1.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린 지식과 도구, 방법론을 생산한다.
 2.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3. 협업을 통해 장기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성(Humanity)을 함양한다.
 4. 전통적인 학술 기관 및 기업의 프레임워크를 넘어선다.
 5. 전 세계 리더와 기여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6. 기여자가 전 세계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든다.
 7.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한다.
 8. 발명가와 실천가들의 열정과 고군분투,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공적 기회를 마련한다.
 9. UN에서 정의한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집중한다.
-

조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입해서 플랫폼에 자신의 전문 분야나 역량, 기술이 무엇인지 공유하게 되는데 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데이터이자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협업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다. 회원들은 특정 관심사나, 기술, 경험 분야를 기반으로 그룹을 찾아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그룹 내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조글의 새로운 기능과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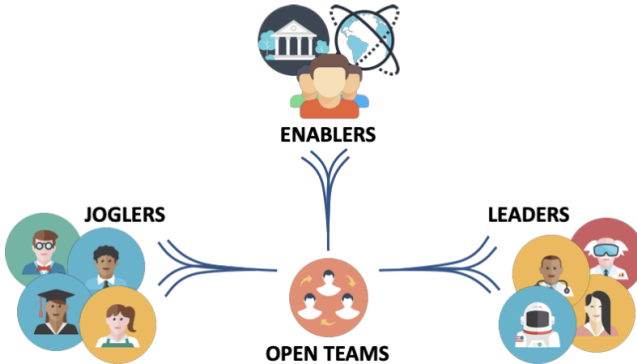
들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실, 기업, 스타트업, 재단, 비영리 기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한 특정 문제를 함께 기획·진행하거나, 조글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조글 플랫폼 상에서 세부 분야, 관심 영역, 프로젝트, 회원별로 참여할만한 프로젝트를 개인에 맞춰 큐레이션한다. (출처: 조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되며, 커뮤니티 유지의 기본 요소인 신뢰 구축을 위해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글 커뮤니티 내 세 가지 역할



(출처: 조글 웹사이트)

- **리더(Leader):**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기업가, 비영리 기관 활동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될 수 있다.
- **기여자(Jogler):**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여자의 가장 큰 책임은 프로젝트 안에서 맡은 바를 다하는 것이다. 전문가, 학생, 아마추어 등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난이도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여자가 될 수 있다.
- **조력자(Enabler):** 프로젝트나 사람에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 연구 및 혁신 기금, 기업, 비영리 단체 등으로 이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다양한 작업 도구, 기술이나 전문성 기여, 작업공간, 연구자금 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한다.

연구에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나 멘토링, 도구나 작업공간을 제공해줄 파트너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세스에 파트너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OPENCVID19 INITIATIVE

WE CAN ALL CONTRIBUTE

OPENCVID19 INITIATIVE

OpenCovid19 is a JOGL program that develops open-source and low-cost tools and methodologies that are safe and easy to use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OpenCovid19 program is powered by a global community of 4000+ volunteers and experts who create solutions to better prevent, detect, and treat COVID-19, and to help forecast the pandemic's evolution.

123 Projects	174 Needs	1570 Members
-----------------	--------------	-----------------

[Join](#) 1570 [Follow](#) 1581 [Favorites](#) 31

오픈 코로나19 이니셔티브는 조글의 시작을 함께 한 대표적 프로젝트이다.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자, 이니셔티브 내 진행 프로젝트의 현황과 현재 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조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조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5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 12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글의 시작점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오픈소스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하는 ‘오픈 코로나19 이니셔티브(Open Covid19 Initiative)’이다. 4,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예방, 치료, 변이 예측

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진단 프로젝트 중 하나는 시카고의 커뮤니티 연구소, 뉴욕의 생명공학 회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내 난민 캠프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양상을 AI 기반의 예측모델을 사용해 분석하여 구호 활동을 돕는 ‘좋은 런던을 위한 AI(AI for Good London)’ 작업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는 오픈 소스로 제공해, 필요한 누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우연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인 세렌디피티를 만든다

조글은 서로 다른 능력치와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작업 그룹으로 빠르게 자체 조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학제적이고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과업을 설계 및 운영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팀을 꾸려가고, 과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속도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맞춰가는 것은 네트워크형 협업 프로젝트가 가진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협업이 일어나는 공간이 온라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정도를 균질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방향성을 잃어서 이탈하거나, 과업과 제대로 동기화하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능력이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글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온

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글은 집단지성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핵심이 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적 성취를 이루는 그룹은 지적인 개인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 상호 작용이 가능한 개인들이 모인 그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조글은 이에 착안해 더 나은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한다면, 개인이 아닌 그룹의 집단지성을 높이기가 더 쉽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과학 분야를 다루는 만큼, 연구 경험이 없는 회원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작된 사용자 경험 중심의 인터페이스, 다양한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에 기술력을 투입했다.

조글의 플랫폼 기능 중 눈에 띄는 것은 커뮤니티 내 다양한 회원들과 관계자를 연결하거나 프로젝트를 매칭할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아이템을 예측하여 적합한 특정 항목을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의 재능을 알맞은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것은 많은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일이다. 물론 운영팀이 커뮤니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조정할 수도 있지만, 운영팀의 노력만으로 어렵거나 그보다 더 섬세한 조정

이 필요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은 유용하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선호 데이터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어떤 주제나 역할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 개인별 ‘관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예측 모델링 방식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잠재적 협력자나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프로젝트 혹은 긴급과제, 관련 자료나 데이터 등을 제안하여 추후 긍정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연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그리고 집단지성 방식의 참여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인 회원의 참여 지속성을 유지하는데에도 알고리즘의 역할이 있다. 사회에 대한 관심, 문제 인식, 호기심과 열정, 기여하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하던 사람들이 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역할을 잘 찾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원이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머물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도록 돕고, 개인의 성장과 프로젝트의 성과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각 회원의 관심사를 지속해서 환기하고, 커뮤니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커뮤니티 내 필요와 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하여 활용한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

조금은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많다. 오랜 시간 축적된 전통적인 연구와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만큼,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한 검증 과정이 장벽이 될 수 있다.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넓게는 우선 실험실과 연구 자원에 대한 고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

근이 가능한 연구 프로젝트를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더 많은 참여자가 동참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경계를 계속 넘나들 때, 연구의 범주도 확장할 수 있고 관련 시스템 정비도 수월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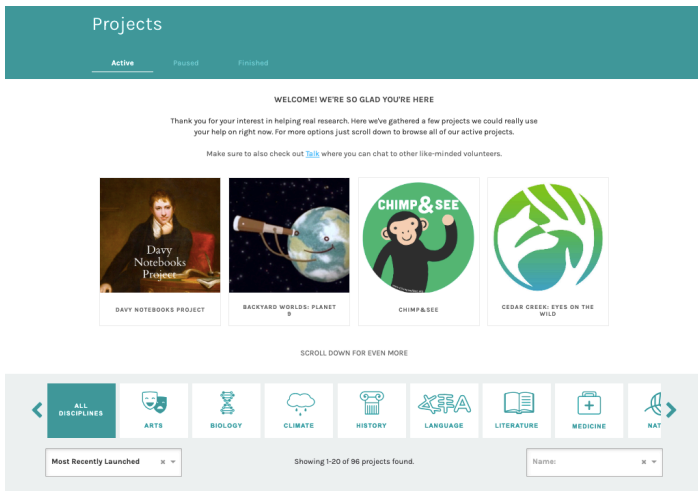
이 밖에도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구현하는 것도 중장기적 미션으로 꼽힌다. 온라인 협업 플랫폼으로서 조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조글은 플랫폼 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적 및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촉진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디지털 협업 내 이해관계자간 역학 관계가 어떻게 집단지성의 지식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소시오크라시(Sociocracy)²⁹, 홀라크라시(Holacracy)³⁰와 같은 흥미로운 개방형 조직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그룹과 협력하여 새로운 조직 구조의 흐름을 쫓으며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²⁹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역동적 자치(Dynamic self-governance) 조직 (출처: 소시오크라시 - 자율경영 시대의 조직개발)

³⁰ 관리자 직급을 없애 상하 위계질서에 의한 의사 전달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출처: 시사상식사전)

[더보기] 주니버스(Zooniverse)

시민 과학의 또 다른 사례로 주니버스를 들 수 있다. 주니버스는 2007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천문 사진 7만 장을 공개하며 일반인들에게 분석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이 실험은 새로운 우주 현상을 발견하는 등 과학적 성과로 이어졌고, 이에 옥스포드 교수진은 과학자의 전문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과학 연구 분야에 일반인의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2009년 과학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연구 플랫폼 주니버스를 개발했다.



예술, 생물학, 기후, 역사, 언어, 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출처: 주니버스 웹사이트)

주니버스가 클라우드소싱을 통해 발견한 가능성은 디지털 기술이 수집하는 방대한 원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을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데이터 안의 정보 값을 기술이 놓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찾아내고 이로부터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240만 명의 자발적 시민 회원들이 의학, 지질학, 생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해 6억 4천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했고, 2020년에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업을 시작하는 등 협력 관계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시민 과학 협업 플랫폼 중에서도 주니버스가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으로 쉽고 간단한 참여 방식을 들 수 있다. 가입 절차 이후, 시민 회원은 주니버스 사이트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참여하고 싶은 경우 클릭해서 간단한 사전 교육을 받는다. 이후, 안내에 따라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에서 관찰되는 정보 값을 클릭해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분석 참여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은 선택사항이다. 대중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드러내 참여의 장벽을 낮췄고, 인간과 기술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내 실질적 성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열린 지식 경험 커뮤니티의 가능성: 소셜 R&D

최근 민간 스타트업의 우주 개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연구개발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항공우주 영역에서 이토록 빠른 민간 기업의 성장은 인류가 꿈꾸는 혁신 그 자체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를 들 수 있다. 대규모 자본으로 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순조롭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 재활용 로켓 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 자금과 기술력 제공으로 기술적 난관을 뚫고 자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 스페이스 엑스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우주 벤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내 탄탄한 우주기술 연구개발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¹.

만약 스페이스 엑스가 스스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개발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성공의 놀라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미뤄졌을 것이다. 앞서 본 조글의 방식이 전통적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 밖에서도 실제 유용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이유와 배경에도 오랜 시간 축적된 과학 분야의 지식 체계, 그리고 과학적 역량을 가진 수많은 개인이 있다. 이렇듯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는 달성해야 할 미션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좁혀주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영리 영역에서 연구개발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³¹ Samantha Masunaga, "Don't expect a space race between SpaceX and NASA. They need each other", Los Angeles Times, 2017. 3. 5, <https://www.latimes.com/business/la-fi-spacex-nasa-20170301-stor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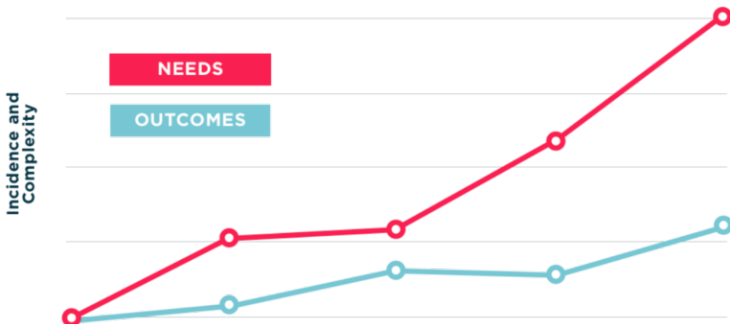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중, 비영리 영역은 시민들이 삶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내부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이어질 더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탐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기후 위기가 촉발한 전환의 필요성, 더 큰 위기에 대한 대비, 코로나19가 유발한 연쇄적인 사회갈등과 불평등 등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를 진단해, 방향성을 파악하여 그 안에서 할 일을 찾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중 바깥을 보기 전에 안을 바라보자고 주장하며, 시민사회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주목하는 흐름이 있다. 사람과 지구의 웰빙을 위해 시민사회의 지식 체계를 과감하게 구축하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의 표준을 만들고 자원과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비영리 시민사회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될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이와 같이 눈앞에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팬데믹이 일깨워 준 새로운 위기에 대비해 비영리 영역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울 비영리 시민사회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현재의 문제, 미래의 솔루션: 누락된 연결고리 잇기

시민사회는 생활 현장부터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대한 대응까지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해법과 방법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 더 큰 사회 변화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조직은 여러 과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작은 조직 규모로 인해 활동가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단체의 활동 비전이나 방향이 결정되기 쉽고, 기존의 활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경

우가 많다. 새로운 활동 내용과 방식을 구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Fail)-검토(Review)-개선(Reform)-반복(Repeat)’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안팎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다. 이 모든 것은 비영리 영역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지원 인프라가 빈약해서 발생해온 오래된 어려움이다.

코로나19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그 복잡성과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는 시기에 비영리 영역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내고, 현실과 미션 사이에 누락된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두고, 회고와 변화를 위한 도약을 논의하면서 주목하는 아젠다이다. 여기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비영리 부문의 내적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니셔티브로 소셜 R&D를 소개한다.



체계적인 R&D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사회혁신의 성과는 사회의 요구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출처: 소셜이노베이션 캐나다)

과거, 사회혁신 영역에서 비영리 부문의 연구 개발 인프라를 육성하는 논의가 소수를 중심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더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논의를 자양분 삼아 2015년 캐나다의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인 ‘사회혁신 제너레이션(Social Innovation Generation)’과 임팩트 투자 재단인 맥코넬 재단(McConnell Foundation)³²이 소셜 R&D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전 논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소셜 R&D가 무엇이며, 비영리 조직에게 필요한 소셜 R&D는 어떤 모습인지 밝혀내기 위해 시민사회, 사회적기업, 재단, 기업, 학계,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이뤄진 펠로우십³³을 구성했다. 이들은 소셜 R&D의 특성과 요소를 설명하는 연구부터 발전 단계와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까지 소셜 R&D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여러 보고서에 담아냈다.

“소셜 R&D는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연구 및 실험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예술과 과학이다.”

- 사회혁신 제너레이션

³² 캐나다 내 큰 규모를 가진 민간 재단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 사회혁신 지원 등 전략적 자원 활동으로 잘 알려져있다.

³³ 펠로우십은 소셜 R&D의 전략과 실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셜 이노베이션 제너레이션(Social Innovation Generation)이, 2018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맥코넬(McConnell Foundation) 재단과 캐나다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 of Canada)이 운영을 맡아 이끌었다. 펠로우십의 활동은 소셜 R&D 실행선언(2014)으로 시작해서 투자준비 프로그램의 소셜 R&D 생태계 조성 이니셔티브(2019)로 마무리되었다.

그중 2015년에 나온 ‘게팅 투 문샷(Getting to Moonshot)’은 소셜 R&D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보고서로 북미 지역 비영리 조직의 연구개발 흐름을 추적하며, 소셜 R&D가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비영리나 소셜 임팩트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실태 파악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소셜 R&D에 대한 섹터 차원의 논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 **1단계:**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초기 단계로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사회적 부문의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습하고, 어떤 필요성을 가지는지 확인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2단계:** 기존과는 다른 경로 혹은 방법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이나 더 나은 성과를 만들었던 사례를 찾아보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조사한다. 성공적인 동료 간 코칭이나 학습 개발의 요소를 검토한다.
 - **3단계:** 공공 기관이나 재단과 같은 주요 협력 파트너가 소셜 R&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과 가치를 공유한다. 내부적으로는 활동가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 **4단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 **5단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준비한다.
-

소셜 R&D 펠로우십은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이 아니다. 소셜 R&D의 방향성과 전략을 구상하는 작업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용적 도구,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과 공공 정책 개발 등 실행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셜 R&D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소셜 R&D가 뿌리내리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중 하나가 캐나다 고용 사회개발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주도하는 사회혁신·사회적 금융 전략(Social Innovation/Social Finance Strategy) 안에 소셜 R&D 아젠다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 기관에 지속해서 소셜 R&D를 알리고, 다양한 논의에 관계자를 초대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0년 5천만 달러 규모의 캐나다의 사회금융 투자 준비 프로그램(Social Investment Readiness Program)에 소셜 R&D가 포함되는 결과를 얻었고,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연구 개발 활동과 급진적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 최대 2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과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2021년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소셜 R&D를 실험하고 발전 시켜 나갈 현장 조직, 자금 제공자, 정책 수립자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전국 단위의 모임을 2020년부터 ‘소셜이노베이션 캐나다(Social Innovation Canada)’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Image description: A screen capture from the Gathering shows a Zoom window of 49 attendees smiling and making heart shapes with their hands.

2020년 소셜 R&D 개더링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다.

(출처: 소셜이노베이션 캐나다)

2021년 올해는 3월 30~31일 양일간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220명의 비영리, 사회적기업, 연구 기관, 학계, 정부, 기업, 자선 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실무자와 리더십이 모여 소셜 R&D와 사회혁신에서 권력 불균형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나타나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라인상의 발표와 스토리텔링, 오픈 스페이스의 방식으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나온 논의는 소셜 R&D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향을 만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환을 위한 성장 토대 만들기

전통적 연구 개발은 주로 정부, 기업,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정 분야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물이 국가 단위의 전략이나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며, 진행 과정이나 성과에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지식 또한 이론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국한되기도 한다. **소셜 R&D가 이것과 구별되는 부분은 현장에 대한 관점과 지식에 대한 개념 설정이다. 현장 활동가나 실무자, 그리고 현장 그룹의 역할과 역량이 그동안 과소대표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포괄적 방식의 지적 인프라를 이야기한다.** 현장과 이론 영역이 상호 소통하는 구조를 일컫는 것인데, 이를 세우기 위한 토대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 **역량(Capacity):** 조직 내 권한 구조, 의사결정 방식, 학습 패턴, 인센티브 개선과 같은 체질 개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프로토타이핑, 실험, 데이터 과학,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직의 리더십은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화(Culture):**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이해, 사고방식, (비)공식적 관행, 언어, 전통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곧 지적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는 모호함과 복잡성을 견딜 줄 아는 것, 위험을 수용하고 열린 자세로 공감하며,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태도에서 형성된다. 중요한 것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할 기회와 실패를 감당하는 용기가 격려받을 수 있

여야 하고,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리더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연결성(Connectivity):** 연결성은 정보와 지식, 경험이 조직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넘어 확장되기 위해서 중요하다. 데이터나 지식, 노하우가 개인이나 조직 안에 머물지 않고, 공유되고 상호 연결됨으로써 더 많은 연구를 자극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보다 문제가 몸집을 키우는 속도가 빠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역량과 사회·정치·경제적 자원,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연구개발 방법론은 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소셜 R&D는 이제 막 실행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느 때보다 새로운 상상력과 돌파구가 필요한 이 시기에 공동의 역량을 모아 비영리 영역의 장기적 성장판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3.5%의 적극적 행동가를 조직한다

: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

#급진적상상력 #분산된의사결정 #실험 #학습과개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경험하며 지구 시스템이 더 이상 인간의 개입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 불리는 환경 캠페인은 전 세계 133개국의 청소년 16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후 위기’ 문제는 미래에 있을 실존에 대한 위협이라 말한다. 2021년 가을, 한국 청소년과 청년 기후 활동가들도 시민들과 함께 ‘청년 기후 중립 2040 시나리오’³⁴를 공동 제작했다. 느슨한 예측이 아닌 지구온난화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 잔여량을 기준으로 두고, 이를 역으로 계산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7%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태계 보전 및 회복 탄력성 증진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이고, 이는 기존 시스템 변화를 뜻하며 일자리 소멸과도 연결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존과 다른 생활 방식, 비즈니스 방식이 요구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위기 문제가 불평등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제임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글로벌 시민사회는 어떤 힘을 함께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³⁴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2021.8.3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Ka61X4415sxcpgYGiQaR52A022FAEr_8x3hdZQ7tbc/edit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웹사이트)

창의적 시위를 통해 세력을 조직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두 가지 운동: 사람의 힘(People Power)과 정치적 힘(Political Power)

여기 창의적 시위를 통해 세력을 만들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두 가지 운동을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다. 2017년 대학에서 화석연료 폐기 운동을 하는 기후 활동가들과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지원을 받는 기후 정책 연구원의 노력으로 설립된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치적 행동을 옹호하는 미국의 정치 행동 조직이다.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된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16년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더운 해를 경험하며 기후 위기가 매년 더 나빠지고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들은 위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후 행동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위기를 막기 위한 충분한 힘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장 먼저 미국 운동의 역사를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미국 인종차별 운동 역사와 뉴딜을 통해 과거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를 가로막는 부와 권력에 대항했던 1924년 150만 명의 노동자 파업, 그리고 1964년 민권법³⁵과 1965년 투표권법³⁶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시위와 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되짚어볼 때, 미국의 비폭력 운동은 미국 인구의 3.5%에 불과한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초기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활동은 3.5%의 참여자를 만들기 위해 대중의 지지와 압박을 구축하는 여론 형성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곧이어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 이들의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정치 참여를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기후 변화를 막는 동시에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대규모 운동을 만들며,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하는 정치 행동 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³⁵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한 미국 인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 하나이다. 이 법은 불평등한 투표자 등록 요구 사항의 적용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 편의시설에서의 인종 분리를 종식한 법이었다.

³⁶ 1965년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은 투표에 관한 차별을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한 미국 역사상 기념비적 법률이다. 이 법은 주(州)와 지방 정부가 선거 자격을 제한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요건, 표준, 관행, 또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법으로,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미국 시민의 권리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거나 줄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기후 운동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었다. 설립 당시 목표는 2018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화석연료 기업들의 부패한 영향력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폭로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할 지도자 선출을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는 운동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본인들의 활동이 환경 운동보다 1960년대의 미국 민권 운동이나 2011년의 월가 점령 시위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기 전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의회의 어떤 의원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기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손을 뺀 진보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 선라이즈 무브먼트 회원

선라이즈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대부분 20~30대 기후 활동가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란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해당 이슈에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11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과 함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의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며, 2020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Joe Biden)을 비롯한 의원 16명에게 그들의 그린 뉴딜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2018년 중간 선거 이후,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을 포함한 그린 뉴딜 지지 의원들과 함께하며 활동이 초점을 '탈탄소화, 일자리, 정의'라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

제안에 맞췄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제로(Net-Zero) 달성, 재생 에너지 분야와 연방 일자리 프로그램 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를 정책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포틀랜드(PDX))

“선라이즈는 겁에 질린 젊은이들이 뭔가를 할 방법을 찾는 모임입니다. 빠르게 익숙해졌지만, 그들은 노련한 운동가가 아닙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은 기후 위기와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약간 겁먹은 청년들입니다. 해돋이(Sunrise)라는 이름은 새로운 날이 밝기 전 밤이 항상 가장 어둡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청년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 웨버, 선라이즈 무브먼트 정치 국장 인터뷰 중

(Weber, the Sunrise Political Director)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조직화 기본 전략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수천만 명의 적극적인 참가자를 만드는 운동이자 이 이슈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투표하도록 촉진하는 운동이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부와 참여 확장과 같은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조직을 확장할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방식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 주축의 시민 권력을 만들기 위한 ‘선라이즈 허브(Sunrise Hub)’가 되어 25명씩 참여 시민을 초대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인생의 6개월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 전 갭이어(Gap Year)를 생각했다면 한 학기를 휴학하고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로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함께 할 수 있다. 선라이즈 허브에 참여하면 선라이즈 학기에 등록해 선라이즈 무브먼트 액션 영상을 공유하라는 미션을 받게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구조를 두지 않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의 청년이 직접 행동에 나섰고, 80,000명이 이메일 보내기, 정치인에게 전화하기와 같은 캠페인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TAKE ACTION ONLINE

Start with reaching out to your local Sunrise Hub to learn about what is going on in your community and how you can make a difference. It might take some time to hear back from your local hub so in the meantime attend a welcome call on Tuesday and then throw down on Thursday with our weekly online action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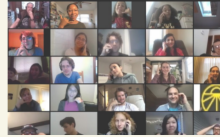
1. Join a Sunrise Hub Near You

Reach out to a local Sunrise hub near you to see how you can get involved!



2. Attend a Welcome Call

Learn more about Sunrise, what we're doing, and the different ways you can take action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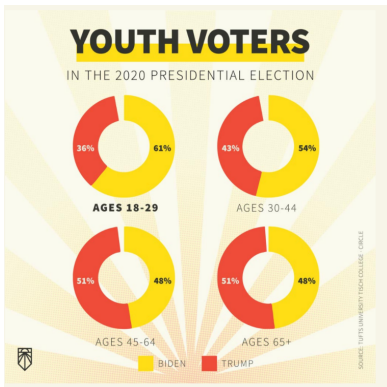
3. Join one of our Phonebanks to Call for the Green New Deal

These phonebanks are a chance to make calls as a part of our Good Jobs for All Campaign and take action with Sunrisers across the country.

선라이즈 무브먼트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웹사이트)

설립 이후 5년 동안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대규모 시위를 포함하여 작고 기발한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수만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동력은 이전 세대들이 기후 변화의 위협을 무시하고 MZ세대가 감당하고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다. 여기에서 시작된 이들의 즉흥적이지만 지속적인 활동은 놀랍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지난 8년간의 국가 단위의 논의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평가받는다. 2019년 4월에는 그린 뉴딜 투어를 진행하며 8개 도시와 200개 이상의 시 정부를 투어를 진행했다. 이 투어에는 그린 뉴딜의 중요성과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기후 운동의 주요 정치인, 활동가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웹사이트)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청소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650만 명이 넘는 유권자와 접촉³⁷하며,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했다. 특히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등에서는 주요 대학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승리를 이끌었

다. 이 밖에도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 그린 뉴딜을 지지하는 9명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지하고 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기후 명령(Climate Mandate³⁸)’이라는 청원을 통해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이고 창의적인 내각 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청원 사이트에는 기후 내각 구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후 내각의 원칙 및 기후 및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서 신뢰하는 자격을 갖춘 내각 구성원을 제시하였다.

³⁷ 엽서 777,570장, 문자 2,616,834통, 통화 5,820,265통에 달한다.

³⁸ <https://climatemandate.org/>

CABINET PICKS

CLIMATE CABINET CRITERIA:



No ties to fossil fuel companies, or corporate lobbyists.



Collectively, the Cabinet should be representative of America.



Fights with the urgency that the climate crisis demands.

SECRETARY OF THE INTERIOR

More Info ▾



REP. DEB HAALAND
U.S. House Representative, New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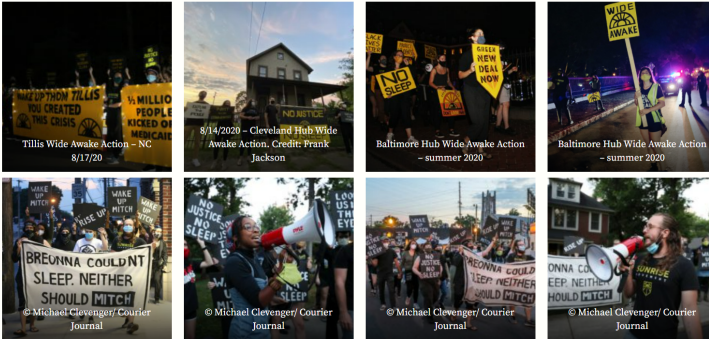
A visionary Secretary of the Interior has enormous latitude to crack down on giveaways to fossil fuel corporations, like permits to drill for oil on public lands and in public waters. With a progressive leader at the helm, we can make real progress.

As the first Native American to hold this position, Rep. Deb Haaland would usher in a new era of Indigenous authority over stolen land. She is a fierce ally of our movement who has fought for renewable energy job creation in the House as Vice Chair of the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and Chair of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Parks, Forests and Public Lands.

기후 내각을 제안하는 웹사이트 (출처: <https://climatemandate.org>)

이렇듯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사람의 힘(People Power)’과 ‘정치적 힘(Political Power)’ 두 가지 모두를 구축하는 것을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으로 삼고, 조직, 통신, 파트너십 및 정치, 운영 4개 부문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은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운영되는 분산형 ‘허브’로 이뤄져 있는데, 이러한 허브는 50개 주에 걸쳐 400개 이상이 있다. 또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뉴욕 등 지역별로 주택을 인수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고 사는 공유 생활 공간인 ‘무브먼트 하우스(Movement House)’를 운영한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화 확장 전략: 우리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국의 정치인 깨우기 ‘와이드 어웨이크(Wide Awake)’ 캠페인 모습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웹사이트)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운동하는 커뮤니티로서 역량을 키우고 확산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메시지로 발신한다. 2021년 여름,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공공주택을 위한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이라는 주제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내 14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자신의 힘을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방법을 배우는 9주간의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며, 공공주택 거주자와 선라이즈 무브먼트 리더 그룹이 함께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악화된 불평등 문제와 인종주의가 어떻게 의료 시스템과 경제, 치안 및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공공 주택이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행

동으로 옮기고 팀으로 일해보는 과제를 주며, 대면 및 비대면 세션 진행을 통해 전국의 청년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2021년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주요 운동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Good Job for All)’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약 운동을 조직했다. 이 서약은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투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의원, 선출직 공무원, 출마 후보자, 주권자로서의 대리인 등 각 역할에 따른 참여를 구분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서약서에 서명한 정치인 리스트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유해 모든 의원의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

3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시민들의 힘과 정치 권력의 힘을 조직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줌 미팅,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온라인 청원 운동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 뜨는(Sunrise) 시간에 정치인들의 집 앞에서 비폭력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직접 행동에도 열정적이다. 이렇듯 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촘촘하고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탁월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35세 이상의 시민들이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연대하는 방법을 제시한 35+ 서포터 가이드라인(35+ Supporter

Guideline)³⁹이다. 이 실용적인 문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5세 이상의 시민들이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지원하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다정하게 안내한다. 초대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질문하고 입장을 밝히는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언어로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문서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이해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운동 문화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기후 위기라는 불행한 현실을 일생 마주하며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할 세대라 일컬으며, 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선택한 전략적이고 문화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가이드라인 서두에서 강조한다. 또한 미국 사회가 청년들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고양하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청년 스스로 리더십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에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 모두는 기후 변화로 잃을 것이 많지만,
그중 청년들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 낼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의 운동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 리더로서 스스로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고

³⁹ Sunrise Movement, Sunrise 35+ Supporter Guidelines, 2020.3.2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sschPmgbycRhva9ECOajN7b4moQIQiTO-oMSDkk3s/edit>

서로 배울 수 있는 청년 주도, 청년 중심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략) 우리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년간의 조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조직하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35+서포터 가이드라인 중

그리고 이러한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운동 문화는 12가지 원칙에 잘 녹아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운동 문화 12가지 원칙

1.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운동이다.

우리는 기후 변화를 미국 전역의 시급한 우선 과제로 만들고, 화석 연료 기업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부패한 영향력을 종식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는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2. 우리는 지역사회와 대화를 통해 힘을 키운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파하기 위해 이웃, 가족, 종교 지도자, 학교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이야기한다. 우리의 활동과 강점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수는 계속 증가한다.

3.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평야, 산, 해안에 다양한 색깔과 씨앗을 가지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놓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모두에게 통하는 사회의 진정한 약속을 만들기 위해 나눔의 싸움에 단단하게 모였다. 우리 국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4.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한다.

비폭력 방식을 유지해 대중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운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5.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기후 변화로 잃을 것이 있고, 함께 함으로써 얻을 것이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다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6.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 모두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50시간까지 자원봉사를 통해 시간을 제공한다. 우리 중 일부는 기부를 할 수 있다. 우리 중 몇몇은 집이나 회의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체를 운동에 초대한다.

7. 우리가 주도한다.

선라이즈라는 이름으로 3인 1조의 운동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에게 허락이 아닌 조언을 구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

8. 우리는 실험을 받아들이고 함께 배운다.

우리는 불안전함을 환영하고, 혁신을 공유하고, 정직한 대화가 뒤따르는 정직한 실수를 통해 배운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기여하고, 대안을 모델링한다.

9.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며, 공동 가정을 돌본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환경이 건강할 수 있는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며, 우리가 함께 강력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것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존중한다.

10.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연대한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기후에 해를 입히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운동과 연대한다.

11.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었던 운동을 존중하고 이어간다. 우리는 인종 차별과 그것에 기반을 둔 제도에 대항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억압적인 태도를 배우지 않고 피부색, 부의 정도, 사는 곳,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현상에 용감하게 직면한다.

12. 우리는 밝게 빛난다.

물론 힘들고 슬픈 날도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낙관과 희망적 관점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성취감 있고 즐거운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

선라이즈 2.0을 향하여

현재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향후 운동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선라이즈 2.0(Sunrise 2.0)' 초안을 작성 중이다. 2016년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설계한 이들은 2020년의 조직 전략과 구조, 문화, 스토리 등을 미리 설계하기로 했고, 이 디자인 작업을 '프런트로딩(Frontloading)'이라 불렀다. 전략과 구조, 문화, 스토리를 새로운 조직의 'DNA'라 칭하며,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DNA가 약 4년의 조직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후 모든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앞으로의 운동을 위한 4개년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1년에 걸친 개발에 착수했다. 2020년부터 10명의 새로운 프런트로딩 팀이 직원과 허브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이 팀은 18세 이하 구성원을 포함하여, 지역 출신이 다양한 다수의 BIPOC⁴⁰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허브, 지역 및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와 직원으로 구성된 프런트로딩 팀은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살기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 우리 운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과 씨름하며 선라이즈 2.0을 위한 전략, 구조, 스토리 및 문화를 업데이트했고, 새로운 '운동 DNA'를 개발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이 초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피드백을 취합하는 중이다.

⁴⁰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을 말한다. 특히 미국에서 흑인, 원주민, 그리고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라이즈 2.0은 2017년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창립하기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DNA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창립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지만, 이제 향후 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기후 변화는 이제 정치 영역의 주요 아젠다이며,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이 사회를 크게 바꾼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인종, 계층 간 허브 구축, 대규모 리더십 구축 등 중요한 사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선라이즈 2.0 DNA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부터 12월 까지 ‘선라이즈를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Sunrise)’를 개최 중이다.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 두 개의 세션을 진행 중인데, 하나는 제안된 새로운 스토리 및 전략 요소를 논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민주주의 방식, 허브 및 원칙과 같은 구조와 문화 요소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각각의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룬다.

스토리 및 전략 세션	구조 및 문화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새로운 그랜드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 우리의 새로운 변화 이론은 무엇인가? • 어떤 종류의 캠페인을 실행할 것인가? • 우리의 새로운 메타 내러티브 (Meta Narrative)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라이즈 2.0에서 허브 구조와 목적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어떻게 회원들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선라이즈 2.0의 새로운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운 프런트로딩 팀은 수십 명의 활동 회원 및 원로들과 대화를 나누며 운동의 역사와 구조를 연구해 왔다. 이 모든 학습을 바탕으로 팀은 4~5년간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지탱할 전략, 구조, 문화, 스토리의 초안을 개발하여, 선라이즈 무브먼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수백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나 파트너, 대중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테스트’ 단계를 이행하는 중이다. 이 모든 피드백이 수집된 후, 12월까지 프런트로딩 팀은 피드백을 연구하여 초안 DNA를 수정하고, 2022년 3월 새로운 운동 DNA의 최종 제안을 비준 또는 거부하는 전체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선라이즈 2.0 DNA 개발을 계기로 기후 위기와 싸우는 새로운 운동 세대를 키우고, 더 많은 청년층을 조직하여 그릴 뉴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며, 그린 뉴딜 의제를 다루는 정치인 선출 및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How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righ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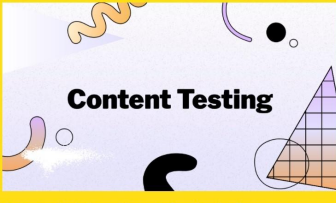
Watch the Frontloading x Movement Leaders Call:



This call happened on 9/14 as an overview of Frontloading (what it is, where it's been, where it's going and how you can be involved) and is recommended for all movement members!

WATCH NOW

Sign Up to Participate in Content Testing:



Content testing is the exciting part of our Frontloading process where we get feedback on a draft of our updated Movement DNA (strategy, structure, story & culture). This part of Frontlo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we want to get your Hub's feedback!

SIGN UP

선라이즈 2.0 DNA 콘텐츠 테스트 참여 웹페이지
 (출처: 선라이즈 무브먼트 웹사이트
<https://www.sunrisemovement.org/frontloading/>)

강력한 이야기가 만든 성과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자신의 활동 중에서 ‘기후’ 아젠다를 미국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현재 의회 통과를 앞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후 프로그램 예산이며, 사회복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5천억 달러에 달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은 정치인이 기후 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미국의 기후 정치 여건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평하고 있다⁴¹.

이런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었고, 이 내러티브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 인종 차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2022년부터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린 뉴딜 지지 후보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를 집중 지원하며, 그린 뉴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새로운 운동 DNA 2.0의 비준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⁴¹ Sunrise Movement, Reimagining Sunrise 세션 슬라이드,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hB5MebMfHJWdsW0reZ7F_wskLD8Rdck00yc44n3Dy_s/edit#slide=id.p

기록과 데이터로

차별과 혐오를 가시화하다

: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

#센스메이킹 #학습과개발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생존과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혐오와 차별의 감정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기존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혐오와 차별은 증폭되고, 평소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편견이 있던 소수자에게 문제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나타난다.⁴²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 부족, 잘못된 정보, 정치적 선동 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특정 집단에 감정을 극단적으로 쏟아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증폭된 혐오와 차별이 팽배한 이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미’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혐오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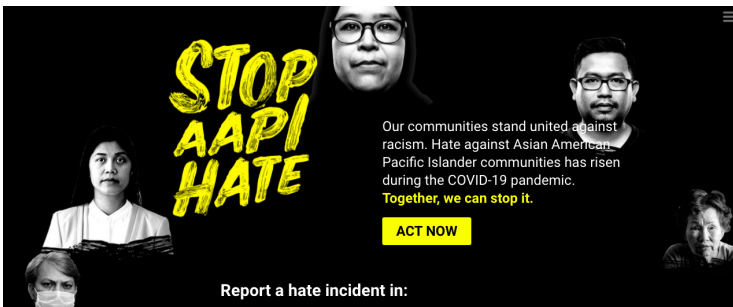
2021년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8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⁴³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여기에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미국 사회 내 소수자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은 오랜 시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미국 사회 내 소수 중에서도 소수인 아시아계 미국인이 받는 차별은 그동안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중국이 지목되면

⁴² 홍성수, “코로나 시대의 혐오와 차별: 대응과 과제”, 발전대안 피다, 2021. 4. 22, <http://pida.or.kr/pium/?idx=6405910&bmode=view>

⁴³ “미 애틀랜타서 1시간 새 3곳 연쇄총격. 한국계 4명 숨져”, JTBC, 2021. 3. 18,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760

서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정서가 매우 나빠졌고, 가짜뉴스나 편향된 생각이 소셜 미디어로 퍼지면서 눈에 띄게 증오 범죄가 급증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인종 갈등을 부추기면서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과 증오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도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기피 행위와 성추행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문자마시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물결과 함께 아시아 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해시태그를 단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가 공감의 힘으로 공명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이 흐름 속에서 비영리단체 스톱 AAPI⁴⁴ 헤이트(Stop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ate)가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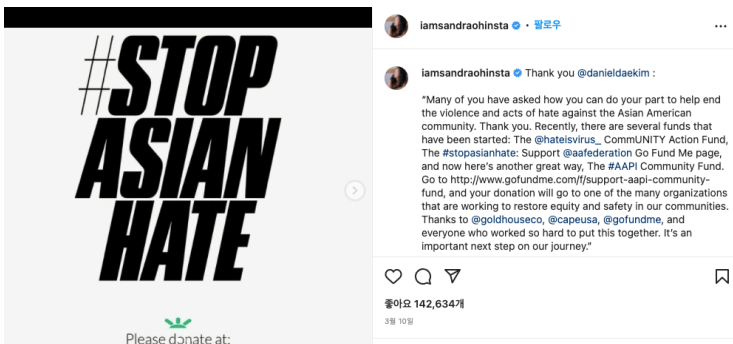


(출처: STOP AAPI HATE 웹사이트)

44 아시아인 태평양양계 미국인을 의미한다.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을 갖다

스톱 AAPI 헤이트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단체의 첫 시작은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미국 내 아시아인의 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하던 3인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StopAAPIHate(아시아인 혐오를 멈추시다)라는 소셜 미디어상의 해시태그 운동이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직간접적으로 차별당한 경험과 주위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해시태그를 타고 전파되었고, 애틀랜타 총기사건 이후 산드라 오(Sandra Oh), 다니엘 대김(Daniel Dae Kim), 제레미 린(Jeremy Lin), BTS 등 유명 인사들의 해시태그 동참으로 단숨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계 미국 배우 산드라오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시다’라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출처: 산드라오 인스타그램)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정책 및 기획 위원회(Asian Pacific Policy and Planning Council),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한 중국인 단체(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아시아 미국 연구학과(Asian American Studies Department)의 컨소시엄 형태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기록과 데이터로 보여진 실상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혐오 범죄는 미흡한 자료 수집과 함께 피해자들이 범죄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정확한 실체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단체는 우선, 정부 당국의 미비한 대처로 구멍이 나 있던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출신을 고려해 온라인상에서 11개 언어로 차별과 증오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커뮤니티 내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마련했다. 인종 차별이나 범죄 피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인종 문제가 사회경제적 문제와 겹쳐져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스톱 AAPI 헤이트는 가해자 처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접근을 취한다. 그래서 그동안 존재했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리는 데 집중한다. 증오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양상이 어떠한지 추적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분석한 내용을 미국 사회에 발신하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24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1월에 발표된 국내 보고서(National Report)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다. 위와 같은 구체적 수치와 데이터는 일반 대중의 막연한 이해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객관적 실상을 지속해서 알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많은 사람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대를 맺는 모습은 미국 사회 전반과 정치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연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전 세대의 경험에서 학습한 청년 세대의 역할이 컸다. 201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가 미국을 휩쓸었을 때, 당시에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비난과 폭력이 가해졌지만, 정부 조치에 의존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지 각자의 서사로 불의를 폭로하며 스스로 기록자가 되었다. 이러한 연대의 목소리와 함께 스톱 APPI 헤이트는 온라인 중심의 어드보카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온라인 공간을 넘어서 제도 영역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되었으나 최근 들어서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불러온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사회 곳곳에서 이에 대한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제도권 내에서의 반응도 빠르게 들려온다. 미국 슈퍼마켓 체인 99랜치(the 99Ranch)나 맥도날드, 디즈니와 같은 기업이 직장 내 반 인종주의적 정책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주·연방 정부 또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에 서명해 증오 범죄 발생 시 법무부가 빠르게 검토하고, 지역 내 법 집행기관이 인종 관련 사건을 조사, 식별 및 보고하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2021년 7월, 증오 범죄 생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건강 관리 및 상담, 학교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연대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데이터, 이 둘의 조합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증오범죄 법안 더 알아보기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톨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

“보편적인 것은 백인성이 아니라 우리의 차단된 상태다.”

- 마이너필링스(Minor Feelings)



(출처: 교보문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겪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노력을 통해 다른 소수민족 집단보다 성공적으로 주류 사회에 진입해 ‘모범적 소수인종’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면서,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은폐되는 측면도 발생한다. 저자인 캐시 박 홍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자전적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를 통해 비백인이자 비남성인 아시아계 여성으로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복잡하고도 견고한 차별을 설명한다. 책 제목이기도 한 마이너 필링스는 소수적 감정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일상에서 겪는 인종적 체험의 양금이 쌓이고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자극받아 생긴,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따라서 보기에 안 좋은 일련의 인종화된 감

어떤 모욕을 듣고 그것이 인종차별임을 뻔히 알겠는데도 "그건 전부 너의 망상일 뿐"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인종화된 현실에서 변한 것이 없는데도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스스로 실패자로 느끼는데 "아시아계 미국인은 성취가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소수적 감정이 발동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보편성을 갈가리 찢어버리고 싶다"고 선언하며, 정말로 보편적인 것은 '백인성'이 아니라 '차단된 상태'에 처한 '비백인'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흑인과 아시아인의 관계는 그동안 꽤 힘들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아시아인들은 더 이상 해충이나 짐승처럼 취급받지 않고 '모범 소수자'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즉, 흑인들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빈곤하지 않은, 근면하고 '우등한' 소수자라는 뜻이었다.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받아들였지만, 백인 우월주의의 위계질서에서 봤을 때 모범소수자라는 고정관념은 아시아인이 백인만큼 우등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아시아인은 흑인과 비교했을 때에 한해서만 우등하다는 의미였다. 미국 백인 사회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을 놓고 소수자가 근면하게 일하면 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 없다는 증거라며 자기들 편리하게 이용했다.”

데이터 거버넌스로

불공정한 관행에 틈새를 만들다

: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Driver's Seat Cooperative)

#급진적상상력 #분산된의사결정 #실험



비대면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노동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등장,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의 활성화로 전통적 고용과는 다른 노동과 일의 방식이 등장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개인의 재능이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에 맞춰 계약의 형태도 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가 늘자 한 회사에만 근무하지 않고 전문성을 살려 여러 일을 동시에 맡길 원하는 노동자가 증가했다. 노동의 디지털화가 일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 플랫폼 노동의 등장으로 표면적으로는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이 갖는 자율성과 선택의 폭이 확대된 듯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 고용 형태나 근로관계가 해체되면서 다른 갈등요소와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 및 ‘개인사업자’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권과 사회보장 관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새로운 노동자 정체성의 등장은 노동법과 사회관계 체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 플랫폼 노동시장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닌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지휘·통제 시스템이기에 노동자는 사용주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일을 받고 실행⁴⁵한다는 특징이 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플랫폼 노동에

⁴⁵ 강수돌,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 스웨덴 사례, 노동리뷰, 2021년 4월호(통권 제193호), 한국노동연구원, 2021, 65-89p

서 가려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응답률, 취소율, 평점 관리 등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한다. 또한 서비스 매칭과 요금, 그에 기반한 임금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자는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데이터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 데이터를 되찾아 플랫폼과 맞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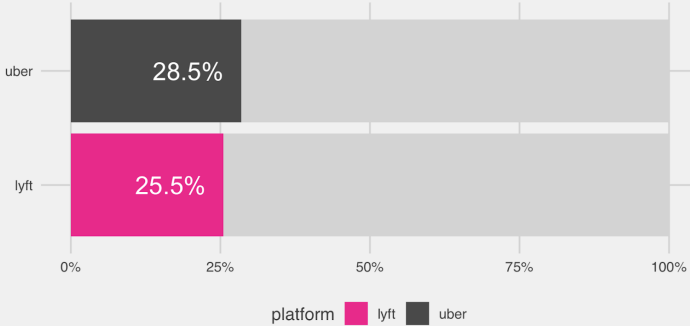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운전자는 특정 플랫폼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므로 여러 플랫폼에 등록해 수입을 얻는다.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대표적이다.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그러하듯이, 우버와 리프트도 방대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운전기사에게 일을 분배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인 운전자는 기업이 알려주는 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모른 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플랫폼은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축적한 데이터에 근거해 요금 조정, 운전자와 승객 매칭, 서비스당 운전자 임금 조정을 결정하는 자동 알고리즘에 의존해 운영된다. 이때 운전자는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진짜 시급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듯 플랫폼 운전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노동력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2019년 만들어진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은 우버(Uber),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인스타카트(Instacar)와 같은 승차 공유·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주축으로 운행 데이터를 공동화하여 플랫폼 노동의 변화를 꾀하는 협동조합이다. 매일 생성되는 운전자의 운행 데이터를 협동조합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개별 운전자가 최적의 수입을 내고 작업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한다. 운전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전자의 GPS 및 원격 측정 데이터, 시간과 수입 및 활동을 포함하는 인력 데이터, 교통수단 및 여행 목적에 해당하는 이동성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협동조합은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노동 시간, 운전 거리 및 경로, 운전자 부담 비용까지 고려한 승차 공유·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평균 수입은 얼마인가?
- 가장 생산적인 노동시간은 언제인가?
-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가?
- 승차 공유와 음식배달 중 팁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Tip rates for Lyft and Uber are similar

Percent of single destination trips that were tipped, July - Oc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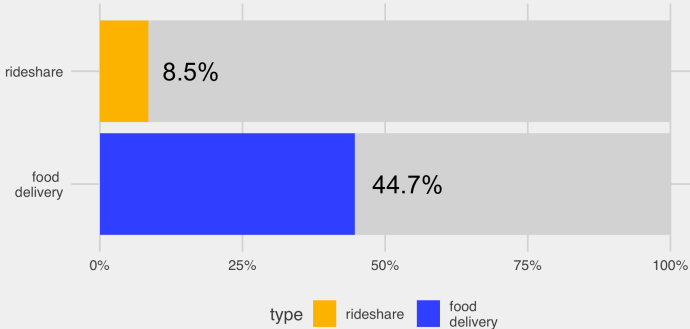


DRIVERSSEAT.CO

Source: Pooled data from Lyft and Uber drivers.

Tips are a crucial part of food delivery income

Tips as % of daily earnings, measured by median share per day (Jul-Sep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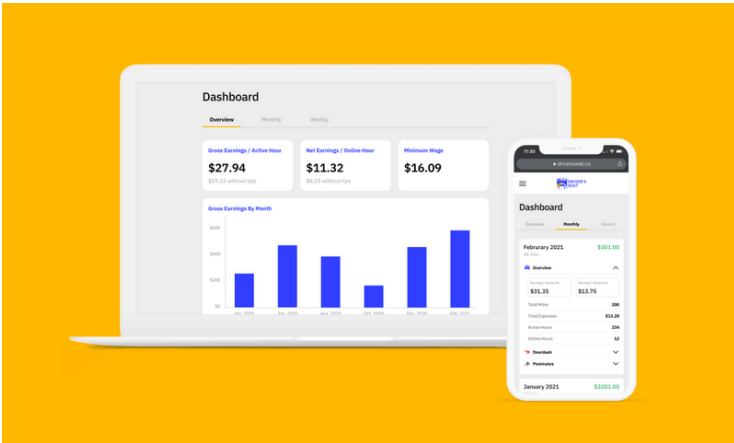


DRIVERSSEAT.CO

Source: Pooled data from DoorDash, Grubhub, Lyft, Uber, and UberEats drivers.

승차 공유 서비스 별로 팁 요율이 어떻게 다른지, 음식 배달과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팁이 얼마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플랫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출처: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 웹사이트)

협동조합 서비스는 경쟁 플랫폼별 운전 시간대와 경로 선택에 따라 더 높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제안하고, 고객 요청이 오면 운전자는 경쟁 플랫폼 간 예상 수입을 비교해 가장 최적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그 결과 운전자에 따라 월별 최대 30%의 수입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데이터 생산자인 운전자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결정권을 가지므로써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누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개인별로 성과, 급여, 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 (출처: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 웹사이트)

협동조합이 축적하는 방대한 교통 데이터는 플랫폼 노동 및 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노동 정책이나 교통 계획을 수립하려는 공공 기관 및 정부와 데이터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해 조합원과 배당금을 나

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과감한 도전에 주목받으며, 현재 미국 내 덴버,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40개가 넘는 도시에서 600명 이상의 승차 공유·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운전자는 애플리케이션의 분석 내용을 보고 여러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호출 중 어떤 서비스와 조건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통제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과 불평등,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은 승차 공유 및 배달 운전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가 흐르고 통제되는 기존 방식에 균열을 낸다. 그렇다면 차량 호출 및 배차 알고리즘과 운전자 간 데이터 정보 불균형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디지털 시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유해 가공할 수 있는 힘은 거대한 자산이자 권력이다.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우버의 성공은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한다. 그리고 운전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 운전 패턴, 당시 지역 내 차량 운행 현황, 날씨, 지역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자와 승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최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버의 요금이 달라진다. 2017년 우버는 이렇게 수집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서비스해온 지역의 차

량 흐름을 점수화한 대규모 교통 데이터를 ‘우버 무브먼트(Uber Movement)’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⁴⁶ 이런 면에서 우버는 단순히 승차 공유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회사에 가깝다. 하지만 우버가 주목받는데 핵심이 된 데이터를 온전히 기업의 소유로 볼 수 있을까?

비대칭적 데이터 소유가 가져올 새로운 불평등과 그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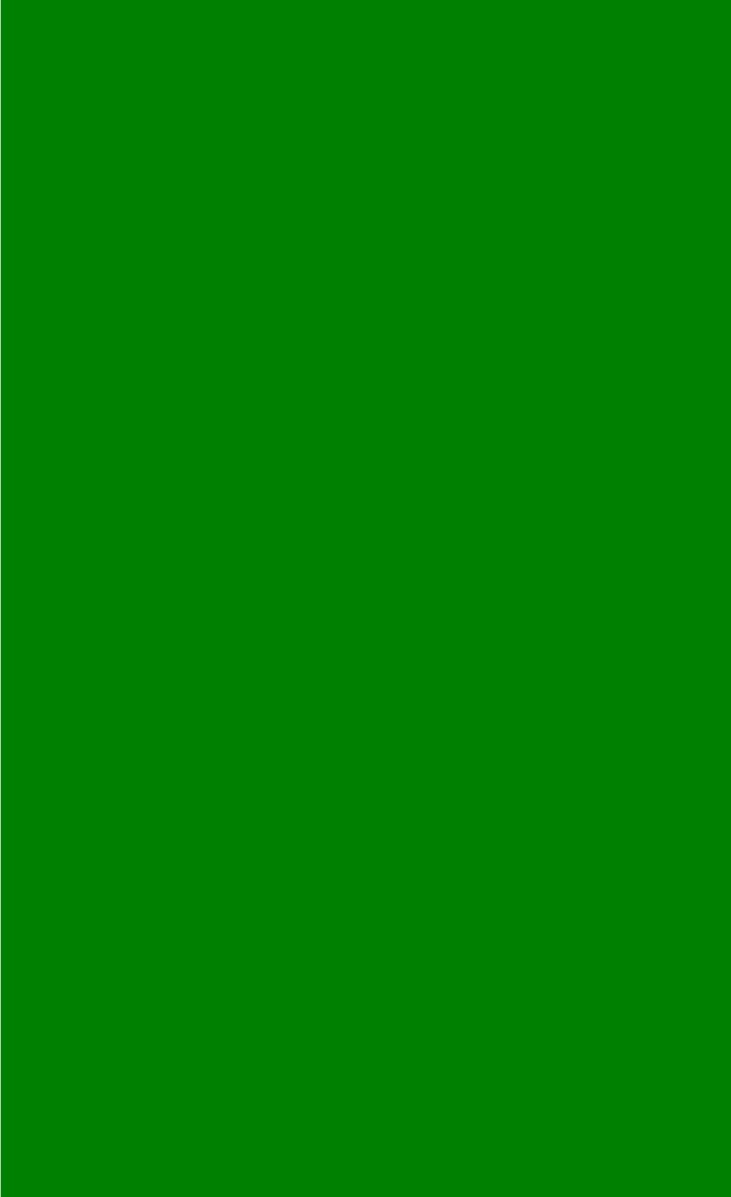
오늘날 데이터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산업과 경제가 확장 중이고, 영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를 축적·소유·가공해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산업적,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정교해지기에 플랫폼 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이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⁴⁷. 그러나 그 성장의 과실을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데이터 생산자로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기본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플랫폼 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감시·통제당하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모호한 법적 지위에 갇혀 노동권과 사회보장 관련 권리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데이터 독점에서 나오는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 통제력과 독점적 지위는 전 세

⁴⁶ Movement Cities, <http://movement.uber.com/cities>

⁴⁷ 손제민·심윤지, “21세기 자본’ 데이터. 생산은 우리 모두가, 이윤은 기업이”, 경향신문, 2020. 1. 22,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001220600015#c2b>

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플랫폼 경제의 사각지대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또한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교육,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이를 둘러싼 소유와 분배의 구조, 건강한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과 사회적 대안 실험이 중요하다. 오늘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적 장치는 매우 다양해졌고, 방법 또한 쉬워졌다. 데이터의 공동 소유 및 자산화를 통해 공공적 혹은 산업적 가치를 누구든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시도는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드라이버 시트 협동조합도 이러한 대안적 실험 혹은 혁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모순과 갈등을 여러 방식으로 완화하며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독점 플랫폼에 대한 부분적 대안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rrieta-Kenna, R.(2019.1.16), "The Sunrise Movement Actually Changed the Democratic Conversation. So What Do You Do For a Sequel?", Politico Magazine,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9/06/16/sunrise-movement-boot-camp-227109/>

Citizen Sense, <https://citizensense.net>

Climate Mandate, <https://climatemandate.org>

Dickey, M. R.(2020.2.6), "Co-Op Helps Uber, Lyft Drivers Use Data to Maximize Earnings",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20/02/06/co-op-helps-uber-lyft-drivers-use-data-to-maximize-earnings/?guccounter=1>

dKosopedia, <https://www.dkosopedia.com>

Farrell, B.(2017.6.20), "Meet the Activists with a Plan to Make Climate Change Matter in Elections", Waging Nonviolence, <https://wagingnonviolence.org/2017/06/sunrise-movement-climate-change-elections>

Goulet-Langlois, M., Nichols, N.& Pearman, J.(2020), "Forging the Missing Link: New Evidence Towards Building Capacity for a Robust Social R&D Ecosystem", A Mitacs Research Report, <http://socialrd.org/wp-content/uploads/2020/09/Social-RD-Capacity-Building-Study-Mitacs-Final-Sept2020.pdf>

Hodal, K.(2020.12.9), "Covid Used as Pretext to Curtail Civil Rights around the World, Finds Report",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dec/09/covid-used-as-pretext-to-curtail-civil-rights-around-the-world-finds-report>

Hu, J.(2020.8.3), “The Second Act of Social Media Activism”,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culture/cultural-comment/the-second-act-of-social-media-activism>

Influence Watch, <https://www.influencewatch.org>

Jilani, H.(2021.7.16), “The Power of Civil Society in a Post-Pandemic World”, Project-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ivil-society-strengthen-democracy-by-hina-jilani-2021-07?>

Joyce, M.(편)(2010), “Digital Activism Decoded: The New Mechanics of Change”, NY: International Debate Education Association

Just One Giant Lab (JOGL), <https://medium.com/@JustOneGiantLab>

Marshall, A.(2020.2.25), “Gig Workers Gather Their Own Data to Check the Algorithm’s Math”, WIRED, <https://www.wired.com/story/gig-workers-gather-data-check-algorithm-math>

Nilsen, E.(2019.9.17), “The New Face of Climate Activism Is Young, Angry and Effective”, Vox, <https://www.vox.com/the-highlight/2019/9/10/20847401/sunrise-movement-climate-change-activist-millennials-global-warming>

Painter, A.(2020. 3. 21), “Coronavirus: Respond at Scale, Build Bridges to the Future”, RSA, <https://www.thersa.org/blog/2020/03/coronavirus-respond-at-scale-build-bridges-to-the-future>

Painter, A.(2021. 3. 4), “See the Future. Act Now”, RSA, <https://www.thersa.org/blog/2021/03/see-the-future-act-now>

Pearman, J.(2021. 1. 21), “Catalyzing a Social R&D Ecosystem”, Jason Pearman의 블로그, https://medium.com/@Jason_PE/catalyzing-a-social-r-d-ecosystem-b8e13319d920

Perezniето, P. & Oehler, I.(2021), “Social Costs of the COVID-19 Pandemic: Background Paper 9”, <https://theindependentpanel.org/wp-content/uploads/2021/05/Background-paper-9-Social-impact.pdf>

Rajasekaran, V.(2017), “Getting to Moonshot, Social innovation generation”, https://mccconnellfoundation.ca/wp-content/uploads/2017/08/Getting_To_Moonshot_Web.pdf

Robinson, K. S.(2020), The ministry for the future, London: Orbit Books

Rosenblatt, K.(2020.9.26), “A Summer of Digital Protest: How 2020 Became the Summer of Activism Both Online and Offline”, NBC 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ummer-digital-protest-how-2020-became-summer-activism-both-online-n1241001>

Santolini, M.(2020.4.24), “Covid-19: the Rise of a Global Collective Intelligence?”,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covid-19-the-rise-of-a-global-collective-intelligence-135738>

Solnit, R.(2021.11.18), “Ten Ways to Confront the Climate Crisis without Losing Hop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nov/18/ten-ways-confront-climate-crisis-without-losing-hope-rebecca-solnit-reconstruction-after-covid>

Stewart, A., Walk, M.& Kuenzi, K.(2021. 9. 15), “The Time Is Right for Organizational Learning”,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the_time_is_right_for_organizational_learning

Sunrise Movement(2020.1.7), “This Is How to WIN the Impossible Green New Deal(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JiiMz0CC5U&ab_channel=SunriseMovement

Sunrise Movement(2020.3.20), “Sunrise 35+ Supporter Guideline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sscPmgbycRhva9ECOajN7b4moQIqiTO-oMSDkk3s/edit>

Sunrise Movement(2021.10), “Reimagining Sunrise: Member Input Sessions”,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hB5MebMfHJWdsW0reZ7F_wskLD8RdcK00yc44n3Dy_s/edit#slide=id.p

The Futur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2020.5),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The%20future%20of%20civil%20society%20organisations.pdf>

Toor, S.(2020.9.22), “Digital Activism: Empowering Women, Creating Change and Demanding Human Rights”, Open Global Rights, <https://www.openglobalrights.org/digital-activism-empowering-women-creating-change-and-demanding-human-rights>

World Economic Forum(2021), “Engaging Citizens for Inclusive Futures: Rebuilding Social Cohesion and Trust through Citizen Dialogues”, Insight Report, https://www3.weforum.org/docs/WEF_Citizen_Perspectives_on_a_Just_Great_Reset_202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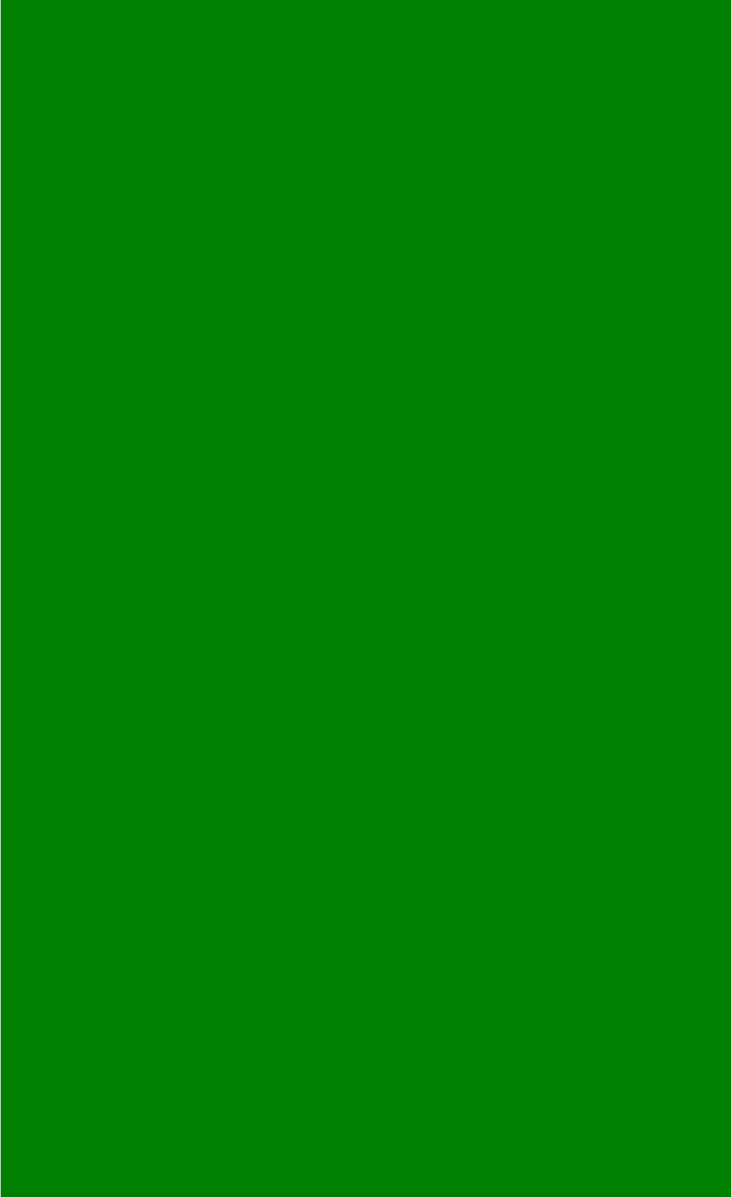
강수돌(2021),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 스웨덴 사례, 노동리뷰, 193, 65-89, 한국노동연구원

고현석(2021.1.3),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대학지성 In&Out,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3>

김재형(2020),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53, 1-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2021.8.3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Ka61X4415sxcpgYGIQaR52A022FAEr_8x3hdZQ7tbc/edit

한인상·신동윤(2019),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76, 국회입법조사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SNPO 2021-B-005)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만든 사람들 다크매터랩스(Dark Matter Labs) | 다크매터랩스는 사회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글로벌 씽크탱크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 혁명과 기술 위기가 만들어내는 변화와 문제에 집중합니다. www.darkmatterlabs.org

연구진 박아영, 안연정, 강은지 | **리뷰** 전세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39 부림빌딩 1,2층 (04523)

전화 (02) 734-1109

전송 (02) 734-1118

메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NO-ND(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